지방의 특색을 살린 대처와 동북 아시아의 상호 발전

2013.11.11

경제의 글로벌화의 영향

세계를 크게 보고 큰 흐름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큰 부분에서 판단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고, 마침내 세계경제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경제는 하나가 되었다」, 「세계경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상호의존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은 지금에 와서는 이미 세계적인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식」을 계속 확인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이것은 세계의 「상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20 년전을 봅시다. 그 때는 1990 년대 초반 무렵에 해당됩니다만, 그 무렵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상식」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세계경제는 하나라고」라고 하는 상식은 없었습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정책(Open and Reform Policy)을 내걸어 세계에 문을 연 것은 1978 년 말이었습니다. 세계경제에 조심스럽게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 년대부터 90 년대에 걸친 일이었으며, 이 움직임이 가속화된 것은 1992 년부터입니다. 그리고 2001 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에서 중국 시장으로의 참가가 확대되었습니다.

구소련권이 세계경제와 일체화한 것은 1990 년대가 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소련 시대에 있어서, 구소련권은 독자적인 경제권을 만들어, 서쪽 경제, 즉 세계경제와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간신히 세계경제와 일체화해, 세계경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 년전에는 세계경제는 하나라고 하는 「상식」은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 물건, 돈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한 글로벌 경제는 중국이나 구소련권 만이 아니고 한층 더 발전해 세계 구석구석에까지 파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뿐만 아니라 중동,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 년전 아시아 경제는 이미 상당히 원기 왕성 했습니다만 그 이외의 개발 도상 지역의 경제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전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프리카가 발전하기 시작해 다음 세기는 최대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세기라고 말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경제 원리로 사람, 물건, 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낮은 가격의 노동력이나 자원을 요구하며 자본이 움직이고, 기술이 움직여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을 받아 들이는 국제 시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의 경제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지구 규모로서의 경제 일체화는 사실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지구는 명실 공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중요성,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는 경제의 원리로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 전의 세계경제를 봐도 알수 있듯이, 경제는 군사 안전 보장의 강한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경제는 군사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즉 군사 안전 보장의 생각, 판단이 정치, 경제를 움직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국의 정치는 더욱 더 경제의 영향을 받게 되어, 경제의 중요성은 현저하게 증대했습니다. 정치체제의 차이를 넘어 국민의 소리가 정치를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요구하는 것은 일상 생활의 향상과 안정된 생활입니다. 내셔널리즘은 한때의 감정의 배출구로서는 도움이 됩니다만,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 즉 생활의 개선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내셔널리즘으로 여러 국가와의 관계가 긴장국면이 되면, 정치 관계가 악화되고 반드시 경제 관계도 악화됩니다. 그 궁극의 모습이 전쟁이며, 전쟁의 결과로 자국 경제는 붕괴됩니다. 국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에 실패한 정치는 머지않아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경제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국민 생활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셔널리즘은 안됩니다. 경제가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가 정치 운명을 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 국가에 있어서 정치나 군사에서 본 지도가 아니라, 경제에서 본 지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메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군사력으로 대외적인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보유하는 군사력은 방어가 주된 역할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인류는 가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해 버립니다. 군사력은 그러한 인류의 어리석은 실수에 대한 보험으로서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시대와 동북 아시아

이처럼 경제를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힘으로 동북 아시아의 일체화는 진행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거역하면 경제의 효율은 내려가고 그 국가의 경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일체화는 확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동아시아의 무역 관계는 서로 역내 무역이 벌써 전무역량의 50%에 달하며, 그 이외의 국가나 지역의 무역액을 크게 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일체화가 실현된다고 해도, 동북 아시아 각국이 국가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광대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중국도 미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EU에 비해 두 배로 큽니다. 이 두 국가는 넓고 크기 때문에 지역 마다 관심의 소재는 다릅니다. 제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중국을 보자면 그 넓이, 인구, 경제 규모에 있어 하나의 성이 하나의 큰 국가와 같습니다. 중국에서 최대의 GDP를 자랑하는 광동성의 경제 규모는 인도네시아보다 큽니다. 중국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지리적인 관계나 역사적인 관계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남쪽은 동남아시아에, 서쪽은 중앙 아시아에, 북쪽은 러시아나 일본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관계도 깊어집니다.
저는 북경에서 대사로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즉 일중 관계는 소중하고, 그 관계는 강화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중국은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구석구석 골고루 일을 해도 그 효과는 작다. 그렇다면, 몇개의 성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효과를 높이는 편이 좋다. 우선 일본을 중요시 하고 있는 지방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자. 왜냐하면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고, 상대도 일본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기분이 들지 않으면 효과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일본에 관심을 갖고 일본을 중요시 하고 있는 동북의 세 개의 성들인 산동성, 천진시, 하북성, 내몽고 자치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또는 역사적 관계로인해 이러한 지방들은 일본에 관심을 갖고있어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기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리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동북 아시아」라고 하는 앵글이 가지는 의미가 있고, 새롭게 전개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역사적 관계도 있어 일본에 가까운 지역은 일본에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지리적 관계가 역사를 만드는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라고 말하면 우리는 곧바로 19 세기나 20 세기의 역사를 생각하고 어두운 기분이 되어 버립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미래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시에 역사는 19 세기와 20 세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역사를 되돌아 보면 거기에는 19 세기에 유럽에서 생각되었던 「국민 국가」도 없고 「민족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 시대가 오래도록 계속 되어 왔습니다. 국가나 국민, 주권이나 국경, 영토라고 하는 것은 19 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영향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동북 아시아」적인 것으로 돌아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중심으로 교류한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고대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자유로운 교류는 감동적이기 조차 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제일로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오래전의「동북 아시아」정신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갖는 오늘날의 의미를 우리는 재발견해야 할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동북 아시아」의 앵글을 갖게되면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며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는 여러분의 시도는 실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동북 아시아의 상호 발전 구조를 생각한다 .
동북 아시아의 상호 발전 구조를 생각할 경우, 엉뚱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왔는가라는 유사성을 추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국가나 지역을 정리해 발전시켜 가기 위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 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정리하며 거기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활력 있고 열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있는 광대한 지역을 하나로 정리한 중국의 국가 만들기의 예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기원 전 221 년에 진(Qin Dynasty)의 시황제(First Emperor)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Han Dynasty)를 거쳐 당(Tang Dynasty)나라가 되어 중국의 통치 제도와 그것을 뒷받침 하는 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시황제는 문자의 규격, 도량형(길이와 용적과 무게를 잰다 .)의 단위, 화폐 및 차궤 (車軌) (차마 (車馬) 의 폭)를 통일했습니다. 이것들이 통일됨으로 인해, 중국은 유럽과 같은 다민족 · 다국가의 집합체라는 형태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는 수단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와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문자가 통일되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 덕분에, 기록으로 남기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전체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라틴어가 오랫동안 유럽의 공통 언어의 역할을 이루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공통의 추억과 이 공통 언어의 존재가 오늘날의 유럽 일체감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의「동북 아시아」를 생각하면, 서로의 말을

배우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어가 국제 언어로서 확립되어, 의사소통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첨가해 두고 싶은 것은 상대의 문화나 상대를 배우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면 할수록, 의사소통도 용이하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서로 배우는 것은 새로운「동북 아시아」의 공통의 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중국에서 도량형의 단위와 화폐가 통일됨으로서, 징세나 부역이라고 하는 행정이 용이하게 된 것 뿐만 아니라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통일된 국가로서 운영되어 왔으므로, 단지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저는 실제로는 유럽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하나가 된 것으로, 그때까지 뿔뿔이 흩어져 있던 많은 경제 주체들이 결부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중국 전 국토의 광역경제라는 것이 성립 되었습니다. EU가 생겨 유로라고 하는 단일 통화가 생겨, 유럽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한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먼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겠지요.

「동북 아시아」를 생각하면, 각국 통화를 교환하는 구조는 벌써 국제적으로 부단히 발전하고 있고, 엔(円)과 원(元)의 직접 결제도 시작되었습니다. 통화가 통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시대는 벌써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더 편리한 구조를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옛날 중국에서 행해진 차궤의 통일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철도의 선로 폭을 통일하는 것과 같으며, 같은 규격의 마차가 중국의 어디에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경제를 진흥하는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 것이지요. 그 시대의 통신 수단은 말(馬)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이 지난 30 년 동안 과감하게 고속도로를 만들고, 고속 철도를 건설하며, 항만을 만들고, 공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경제를 일체화해, 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에서는 모두 통일된 규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요 도시의 경제에만 묶여 있던 중국 시장이 이번에는 지방의 말단 경제체까지 묶을 수 있어 연결된 시장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망라하는 중국의 통일 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통일 시장」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타나카 나오키 선생이 저작 물에서 기술했던 내용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EU와 같은, 아니 오히려 그 이상으로 일체화된 통일 시장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동북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크게 개선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층 더 인프라를 정비하고, 물류 구조를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기초해서 자유로운 움직임과 인프라의 정비가 불충분하다면 그 만큼 해가 됩니다. 역시 인프라를 정비하고 물류를 풍부하게 하는 구조와 소프트웨어를 충실히 실현시켜 가는 것이 이 지역의 급선무 같습니다.

「동북 아시아」의 상호 발전의 사상과 메카니즘

618 년에 성립한 당 왕조가 국가 통치 메카니즘을 완성시켰습니다. 그것은 황제에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집권 구조였지만 그것을 지원하는 많은 법률이나 규칙을 갖는 율령제도였습니다. 즉 사회나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룰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 시대에 국가의 제도로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북 아시아」에도 룰이 필요합니다. 전세계로부터 이것저것 끌어모아 그것들을 이어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만, 역시 동북 아시아에는 동북 아시아의 조건이 있고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룰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세계 전체가 국제 연합 헌장으로 대표되는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필요한 룰을 만들어내고 앞으로도 새로운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일체화는 점점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이 유럽의 특징을 잃지 않고, 아시아에는 아시아의 특색이 있듯이 동북 아시아에도 「동북 아시아」의 특색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10 월 하순의 「주변 제국 외교 활동에 관한 좌담회」에서의 습근평(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주변 제국과의 국가 관계는 크게 변화하고 경제 무역 관계는 한층 더 긴밀화되어 서로 주고 받는 영향은 예전에 없던 밀접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흉금을 열고 지역 협력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밀해지고 화합하게 됩니다. 즉 친화, 그리고 성실, 한층 더 서로의 이익(benefit) 및 관용이라고 하는 이념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북 아시아」에는 지역을 이끌 이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외교는 최근 주변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리관(義利觀)」외교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반 사회에 있어 전통적으로 특히 소중하게 생각되어 온 것이 「의(義)」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선량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리(道理)도 되고 정의도 됩니다. 공자(Confucius)는 「이익을 보고는 도리를 생각한다」(「논어」)(The Analects)라고 말해, 「이익」이 「도리」에 필적할 정도의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Confucianism) 의 또 하나의 고전인 「대학」(The Great Learning)은 「국가는 이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진짜 이익으로

하지 않고, 올바른 도리를 가지고 이익을 구한다」라고 말해 사리를 가지고 이익으로 삼지 않고, 만민의 공의를 가지고 이익을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리관」이 국제 관계에 적용되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국의 사적 이익이 아닌 지역 전체의 공의를 중심으로 해야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한 번 입으로 말한 올바른 주장을 얼마나 실행하는가 입니다. 이 정의에 입각한 입장을 언제까지 일관해서 실시해 나갈 수 있을까인가 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국민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을지 사람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에는 이념이 필요하고, 그것은 우선 공평과 정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국제법으로 체현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제법이라는 것이 많은 국가가 그렇게 주장하고 합의하고 실행하면 그것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주장이 새로운 국제법이 됩니다. 전쟁 전과 같이 대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국제법을 룰로 하는 「법의 지배」는 소중합니다. 힘이 아닌 「법」이 지배해야 합니다. 힘이 아닌 도리가 지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 한나라 때 유학이 우세하여, 당 시대에 과거 제도(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가 생기고 송(Song Dynasty) 시대에 유학 우선의 시험이 된 것은, 중국의 국가 통치에 유학을 기본으로 하는 통치 이념이 도입된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지역을 묶어 가기 위해서는 이념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제일로 생각하는, 참신한 「동북 아시아」발전의 이념을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방의 특색을 살린 대응

여기서 “지방의 특색을 살린 대응”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물은 관점을 바꾸면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구상이 탄생하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방은 도쿄를 보기 때문에, 일본의 구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며 해외로 관심을 돌리면, 사실 일본의 선두를 달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도쿄는 나중에 도착한 지역있습니다. 지방, 지방이라고 하지만, 확대경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그 지방 각각의 지역에는 또 각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산동성 하나를 예를 들어도 지역 마다 말도 매우 다르고, 생각마저 차이가 납니다. 저의 출신지인 후쿠오카현에서도 지역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째서 이렇게도 다른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누나가 시집간 후쿠오카의 치쿠고(筑後)지방의 설탕을 넣은 단 떡국에 놀랐습니다. 그 후, 후쿠오카현의 역사를 읽고, 이 차이의 상당수가 에도시대 각각의 지역이

다른 번을 형성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곳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 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도쿄를 본받을지, 얼마나 도쿄와 같이 될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지 일본은 일본적인 것, 동양적인 것을 버리고 서양적인 것을 도입해 가능한 한 서양에 가까워지는 것을 국가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존재인 미국에게 배워 미국과 같이 되는 것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 살아 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두를 달린 것이 도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도쿄를 흉내내려고 도쿄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쿄와 다른 것, 미국과 다른 것, 서양과 다른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한번 더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신 찾기 여행”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곳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함이 있는 여행, 즉 관광업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도 좋았다, 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곳은 자신이 평소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다른 곳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같은 곳에 여행을 하고 싶은 경우는 없습니다. 비일상적인 자극. 아름다움이나 위대함. 쾌적함, 그리움.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좋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가고 싶어집니다.
영국의 농촌을 차로 여행할 때, 농촌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습니다. 일본의 농촌이 이 수준에 도달했을 때, 겨우 일본은 유럽을 따라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들은 각 지방의 건축재료를 사용해 특색 있는 모습을 만들고 구석구석까지 손길이 두루 미쳐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마을 출신의 역사적 인물의 집이 기념관이 되어, 현지 사람이 자원봉사로 표관리를 하고 가이드로 근무합니다. 스스로의 마을에 대한 자랑과 애착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가도 이웃마을과는 다릅니다.
이 “다른 곳과는 다르다”를 파고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차이가 역사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향 역사를 한번 더 배워, 거기에 “다른 곳과는 다른” 두드러진 힌트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의 사람이 또 오고 싶어하는 장소로 만듭니다. 여기에 고향 재생의 하나의 열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같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모색하며 해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해 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이미 행해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산업화, 근대화에 있어 세계의 톱을 달려 온 영국을 예로 들면, 독일에 추월당하고 미국에 추월당하고 전후에는 일본에 추월당했습니다. 그러한 도전이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영국의 도시들은 어떨 때는 부흥하고 어떨 때는 쇠퇴하고 또 다시 살아납니다. 농촌은

쇠퇴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는 국가는 많이 있습니다. 겸허하게 해외에서 배우고자 하는 기분을 되찾지 않겠습니까? 고대부터 진행된 문명을 도입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발전해 온 것이 일본입니다. 이제 어느 한 국가로 가서 끝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만, 한번 더 밖으로 관심을 기울여 세계로부터 넓게 배워 자신을 재발견함으로서 시대를 여는 지혜도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지방의 특색을 살린 동북 아시아의 상호 발전

이와 같이 “다른 곳과는 다르다”는 탐구를 통해서 단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지방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지방의 특색을 찾아내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기에서 찾아내는 것은 다종 다양하고 지방마다, 지역 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중시(重視)에 있으며, 그 지역의 역사 중시에 있으며,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것을 찾아내 집약하는 것이 과제이며,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거듭해서 새로운 지방 특색이 태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다양한 특색을 갖는 지방끼리 이제는 횡으로 연결되어, 손을 마주잡아 지방 친구가 상호 활성화 되는 것이겠지요. 「국경」이라고 하는 인공적인 것을 뛰어넘어 일본에서 보면 바다를 넘고, 지방끼리 자연스러운 형태로 연결되었을 때 「동북 아시아」의 국가가 아닌 지방을 주체로 한 교류가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지방끼리의 경제 교류를 한층 더 활성화 시키게 되겠지요. 그것이 각각의 지방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자연스러운 교류를 어떻게 촉진할지, 어떻게 그 장애를 없앨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교류의 촉진을 위해서 지방이나 지역의 경제를 묶는 인프라의 정비가 급선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육상의 교통 수단 정비, 항만의 정비, 해상운송 수단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항의 정비도 필요하겠지요. 또 「국경」이 갖는 교류의 저해 요인을 어떻게 줄이고 없애 갈지가 긴급한 과제가 됩니다. 사람, 물건, 돈의 흐름을 가능한 한 저해하지 않는 「국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 역시 정치 문제, 특히 북한 문제가 큰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전 보장의 관점 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관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계경제는 하나다라고 하는 「상식」”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 지구 전체의 경제가 일체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력의 한계를 알고 중국과 공존공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변 제국과 함께 번영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것에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논리가 주도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 안에서, 유감스럽게 북한과 관계 제국과의 사이의 신뢰감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계에서 이 지역은 다른 차원의 생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걱정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용서되지 않는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면서 “세계경제는 하나라는「상식」”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노력이 틀림없이 그 하나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일본이 문자로 기록된 역사를 가지기 훨씬 전부터, “바다의 백성”은 이 근처의 해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정변이 있거나, 전란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그러한 어떠한 이유로 일본에 정주하고 귀화한 사람들 덕분에 한층 더 풍부하게 발전했습니다.「동북아시아」가 그러한 전통을 한번 더 되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필요에 응해 그들의 행동으로 더 자유롭게 새로운 공통의 기반을 갖는 경제나 문화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동북 아시아는 지금까지 정치, 군사, 외교, 경제를 너무나 많이 말해 왔습니다. 이제 문화로 시선을 옮겨, 문화를 한층 더 많이 말하고 문화에 더 발언권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이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